

第60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市民福祉委員會會議錄

第2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4月10日(木) 14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東北地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審查의件

審査된案件

1. 서울東北地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 提出)(繼續) 1面

(14時03分 開議)

1. 서울東北地域環境行政協議會規約案審查의件(城北區廳長 提出)(繼續)

○委員長 吳榮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심사의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본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은 어제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오늘은 토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金珉奭委員 김민석입니다. 사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책임자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이 된다면 좀 더 나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중랑천 같으면 본인이 어려서부터 목욕도 해본 곳이고 또는 생활을 해본 곳인데 먼저도 한번 노원구청에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랑천에 가 보신 의원들 계시겠지만 쓰레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홍수만 지면 전부다 한강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3개 구로 포괄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성북구에서는 뭐냐면 노원구 상류에서 안 치는데 되겠느냐? 또 밑에 중랑구 쪽의 입장에서 뭐냐면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곳인데 그러면

옛날에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미루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각 구청장께서 모임을 가지고 좀더 노력을 한다면 결과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찬성발언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안돈수위원님.

○安敦洙委員 안돈수위원입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북구청장뿐이 아니고 25개 구청 구청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있고 또 그것이 광역업무이다 보니까 서울시장이 관리를 해서 모든 행정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은 구청장끼리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해서 일을 하고 구청장끼리 돈을 쓰는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그래서 일을 하고 그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을 안 한다는 그런 구청장은 좀 쉬어야죠. 그리고 엄연히 협의체가 있고 서울시장 광역업무인데 그것을 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그래서 광역업무가 이관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엄연히 협의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그것은 광역업무지 우리 구청끼리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權赫驥委員 저도 반대를, 안돈수위원님 토론에 찬성을 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이다 하면 제일 먼저 흘러내려오는 데가 의정부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의정부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우이천, 정릉천 이런 식으로 중랑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북천하고 청계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천수 질오염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성북구에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가 관이 형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지만 청수장에서부터 관이 형식상으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 마냥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개천이 흐르다보면 같이 합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릉 북악터널고가 나는데 보면 다 복개하는 데를 기둥 세우느라고 헐어놨습니다마는 우수 나가는 데하고 오수 나가는 데가 형식상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상으로는 그렇게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성북구나 다른 구도 우수와 오수를 분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구청에서 할 문제가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랑천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가 많다 캠페인을 1년에 수십번 합니다. 지난 달인가 이달에도 분수대 각 자생단체에서 하루 환경부 소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취로사업을 성북구 관내에서는 쓰레기 줍는 취로사업 밖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위원님들 보셨겠지만 각 동별로 취로사업 대상자를 길 쓰레기 줍는 것하고 중랑천 쓰레기 줍는 것하고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취로사업 할 것이. 그렇다면 환경부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시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성북구청에서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지금 성북구청에서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마당에 서울시 소관이나 환경부 소관을 구청장님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소관을 그렇게 해서 위임을 줄리도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교통문제 마을버스 노선문제를 지방자치단체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위임했는데 이것을 위임한지 몇달 되지 않

아서 다시 환원해 갔어요. 이런 예도 있는데 과연 지금 실효성 있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실효성 있는 것은 물어놓고 이것 예산이 좀 어제 국장님 답변에 별로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별로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려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이나 법으로 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쓰레기 줍는 문제하고 오수, 우수 분리관 묻는 것 밖에 할 수가 없는게 경비를 많이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어제 얼마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얼마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우선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들 교통비하고 여비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비도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모이시면 식사는 해야 되고 준비하려면 준비하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의정부는 안 끼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의정부는 맨처음에 흘러내려오는 곳이 의정부에서부터 오염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게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자치제로 해서 아래로 위임되는 상태라면 참 좋은 얘기인데 아직 이리다 관부터 우수, 오수 관부터 제대로 해놓고서 그것이 완비되었을 적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님.

○朴景錫委員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환경문제의 심각한 것은 같이 공감할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세분해서 청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마는 크게 우리가 일컬어서 환경문제라고 한다면 조적이 되었든지 모임이 되었든지 많은 염려들을 하는 그런 기구들이 다소의 어떤 예산이 들더라도 많이 생겨서 더 염려를 해서 좀 더 좋아지는 어떤 발전되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는 좀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효위원님.

○金南孝委員 저도 아까 김민석위원님 토론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또 우리 박경석

위원님에 찬성을 합니다. 사실 구청장 협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우리 몇 개 구에 관할된 중랑천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인접된 관할 구 협의회가 구성됨으로써 앞으로 좀 더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와 직접 관련 지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洪性湊委員 저도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여름에 보면 성북구 길음동이 서울시에서 가장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몇번씩 경고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오존이 높아지고 길음동이 가장 높은 이유가 성북구가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강북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도봉 쪽의 차량들이 성북을 지나가기 때문에 오존 수치가 그렇게 높아진 것인데 이렇듯이 환경이라는 것은 대기라든가 녹지라든가 수질 다 공히 어떤 행정적인 구분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인접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원인행위가 발생해서 또 다른 인접해 있는 구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각 구에서 개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기 이전에 다른 인접 구하고 연관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문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번 서울 동북지역 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金珉奭委員 보충토론 좀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榮作 보충 토론은 나중에 하시고,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李大一委員 제 경우는 환경전문가는 아닙니다만, 8개 구가 있어서 서로 연합을 한 다는데, 몇 몇 군데 한 다섯군데 전화를 해보니까 거의 다 무난하게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대를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꼭 굳이 반대를 해야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김민석위원님.

○金珉奭委員 김민석입니다. 보충토론 잠시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계적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공해다. 공해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접 구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새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로에 대한 인접 구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사실 병목 현상이 생기는 과정이 상당히 많아요. 하다보니까 그것을 책임자적인 구청장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대부분 보면은 각 과에서 어떠한 민원이 올라와 처리되는 것보다는 구청장이 하겠다고 생각 하는 것이 더 먼저되는 예를 많이 봤습니다, 위원은.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꼭 공해 문제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통문제라든가 어저께도 참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전용도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자 라고 할때 그것이 3개 구가 연관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래도 책임자끼리 모여서 논의를 한다면 뭔가 빨리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 생각 할때는 공해문제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나아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權赫驥委員 보충토론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作 보충토론하시겠습니까?

○權赫驥委員 예. 지금 환경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기별로 환경오염시키는 직장을 단속이라고 할까요.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업체, 택시업체 등등 건설업체 이런 데를 분기별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확인서까지 도장을 찍고 전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수시 미아리고개 북악터널 수시 점검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님들이 작년에 자료도 많이 받으시고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성북구청에서 벌과금 매긴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요, 형식상으로. 그런데 타 서울시 환경청 이런 검찰청 등등해서 합동 단속하는 데는 많이 걸렸습니다. 성북구 신문 난 것 몇 번 봤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다른 데서 단속해서 걸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성북구청으로 오면 벌금을 매긴 사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우리 구에 해당된 것을 우리 구에서 못 하고 경찰서나 환경부나 이런 데서 단속을 해가지고 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에도 정릉4동에서 민원관계로 있었습니다만 버스업체, 택시업체 수질오염 시키는 데가 이런 데거든요, 세차를 하니까. 그러면 정화수 있는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법적으로만 들어서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지만 몇 군데가 시설이 되어 있고, 몇 군데가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단속은 몇 군데를 해서 얼마를 벌금을 매기고 시정이 됐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북구청장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행정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항의하니까 직원이 7명밖에 없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나, 단속해가면 한 사람이 정식공무원, 나머지는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런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수구에 직선으로 대가지고 정화조로 나가는 데도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태로 놔두고서 구청장협의회를 만들어서 큰 것부터 하겠다, 우리 소관도 아닌데. 우리 소관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자전거도로 그 땅은 서울시 하천부지 땅이지만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점차적으로 해야지 우리 구 지금 다스리지 못하면서 큰 것부터 한다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용섭위원님.

○李龍燮委員 의결하기 전에 한 10분만 정회하죠.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委員長 吳榮作 반대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時24分 停會)

(14時39分 續開)

○委員長 吳榮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金珉奭委員 굳이 색깔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니까 저는 기립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수」 하는 이 있음)

○委員長 吳榮作 기립으로 하시는 것이 좋가요?

○金珉奭委員 거수로 하죠?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委員長 吳榮作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표결방법을 논의한 결과 거수표결로 하자고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을 확인한바 현재 재석위원은 12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

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3인이고, 찬성하시는 위원은 10인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42分 散會)

○出席委員 11人

洪 性 濬	權 赫 騏	金 光 植
金 南 孝	金 珉 奭	金 榮 植
朴 景 錫	安 敦 洙	李 大 一
李 龍 燮	任 泰 根	

○缺席委員 2人

吳 榮 作	崔 哲 模
-------	-------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鎮 永
---------	-------